



즉시 배포용: 2021년 1월 18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2021년 시정연설의 일환으로 부분 실업 수당 확대 제안을 발표

*새로운 계획에 따라 파트 타임 일자리를 수락한 실업자 뉴욕 주민은 처벌받지 않는 한편,
사업체가 재건할 수 있도록 유연성 제공*

부분 실업 수당은 근무 일수가 아닌 실제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2020년 3월부터 뉴욕주는 400만 명의 뉴욕 주민에게 620억 달러의 실업 수당을
지급했으며, 이는 한 해 예산의 29배에 해당**

**2021년 1월 18일 월요일부터 부분 실업 보험 개정이 발효되며, 실업자인 뉴욕 주민은
2021년 1월 24 일 일요일부터 적용 시작**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021 시정연설(State of the State)의 일환으로 파트 타임으로 근무하는 뉴욕 주민에 대한 부분 실업 보험(Unemployment Insurance, UI)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파트 타임으로 근무하는 실업자 뉴욕 주민은 해당 주간의 근무일이 아니라 실제 근무 시간을 근거로 부분 실업 수당을 산정해도 처벌받지 않도록 보장받습니다. 이러한 개정으로 인해 뉴욕 경제에 더욱 많은 자금을 투입하고 사업체가 파트 타임 일자리를 고용하도록 지원합니다.

법안은 집행 예산(Executive Budget)과 함께 제출되며, 실업자 뉴욕 주민이 정규직을 찾는 가운데 파트 타임 근로를 할 경우에도 혜택을 제공하는 부분 실업 보험(Partial UI)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제정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기술 개선을 통해 수당 산정방식 개정이 가능합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이래로 뉴욕주는 400만 명의 뉴욕 주민에게 620억 달러 규모의 실업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10개월간 집행된 이 금액은 일반적인 한 해 예산의 29배에 해당합니다. 여기에는 2021년 1월 4일로 시작된 한 주동안 뉴욕 주민에게 지급된 10억 달러 규모의 신규 확대 연방 실업 프로그램 지원금이 포함되며, 뉴욕은 다른 주정부보다 수 주 앞서 이를 [시행](#)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이중 위기를 야기하여 미국인의 신체적 건강과 재정적 건전성을 위협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이러한 공중 보건 비상 사태의 모든 피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는 즉시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DOL)에 오래된 규칙을 바꾸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팬데믹으로부터 우리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실업자 뉴욕 주민들은 파트 타임 근무에 대해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파트 타임 근무를 장려하는 것은 뉴욕 주민들이 빨리 일자리로 복귀하도록 돕고, 중소기업에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유연성을 제공하고, 우리 주민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뉴욕주 노동부의 **Roberta Reardon**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제안을 추진한 **Cuomo** 주지사께 박수를 보냅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일자리를 되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뉴욕 주민 중 그 누구도 반드시 필요한 수당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파트 타임 근무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계획은 직원, 기업 및 지역사회를 위한 중요한 노력입니다."

현행법에 따라 실업자 뉴욕 주민의 주간 혜택은 근무 시간에 관계 없이 근무일 하루 당 25 퍼센트씩 감액되며, 이는 파트 타임 근무자에게 부당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에 한 시간 만 근무할 경우에도, 4일 이상 근무한다면 일주일 수당을 전부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분 실업 수당의 불합리한 시스템을 해결하기 위해, **Cuomo** 주지사는 일주일 동안 실제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부분 실업 수당을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긴급 조치를 즉시 시행하도록 노동부에 지시할 것입니다. 새로운 시스템이 시행된다면, 실업자 뉴욕 주민은 일주일에 최대 7일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30시간 미만으로 일하고 총 임금이 504 달러를 넘지 않는 한 실업 수당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부분 혜택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주일에 0~4 시간을 일하고 총 급여가 504 달러를 넘지 않는 뉴욕 주민은 실업 수당을 전액 받습니다.
- 일주일에 4~10 시간을 일하고 총 급여가 504 달러를 넘지 않는 뉴욕 주민은 실업 수당을 75 퍼센트 받습니다.
- 일주일에 10~20 시간을 일하고 총 급여가 504 달러를 넘지 않는 뉴욕 주민은 실업 수당을 절반 받습니다.
- 일주일에 20~30 시간을 일하고 총 급여가 504 달러를 넘지 않는 뉴욕 주민은 실업 수당을 25 퍼센트 받습니다.
- 소득에 관계없이 일주일에 30시간 이상 일하는 뉴욕 주민은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 수당을 받기 위해 뉴욕 주민들은 매주 온라인 또는 전화로 주간 인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DOL이 이러한 변경을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신청자는 공식을 사용하여 인증 시 근무 시간을 근무 "일"수로 변환하는 공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DOL의 인증 시스템에서 근무 일수를 입력할 때, 뉴욕 주민은 해당 주간의 총 근무 시간을 구하여 다음의 차트를 활용하여 인증 시 보고해야 하는 주간 근무 시간을 근무 일수로 변환합니다.

변경은 2021년 1월 18 일 월요일 또는 그 이후에 시행된 근로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실업자는 2021년 1월 24일 일요일부터 이를 인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간 근무 시간		인증 시 보고하는 근무 일수	수당 감액 비율
0	4	0	0
4.1	10	1	25%
10.1	20	2	50%
20.1	30	3	75%

해당 주간의 총 근무 일수를 합산할 때, 하루 최대 근무 시간은 10시간입니다. 근무 시간이 이를 초과할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러한 변경을 적용하고 실업자 뉴욕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Cuomo 주지사는 워크포스 포워드 스트라이크 팀(Workforce Forward Strike Team)의 운영을 시작합니다. 이 팀은 DOL, 주지사 직속 인력 개발청(Governor's Workforce Development Office),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Corporation)의 전문가가 함께 협력하여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 뉴욕 주민과 파트 타임 근무자를 구하는 중소기업을 연결해줍니다. 스트라이크 팀은 또한 기업들이 팬데믹으로부터 회복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파트 타임 직원을 통해 유연성을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도록 도움 것입니다.

또한 Cuomo 주지사는 DOL에 공유 노동 프로그램(Shared Work Program)을 강화하도록 지시할 것입니다. 이로써 고용주는 근로자가 근로 시간을 단축하여 부분 실업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이들을 해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986년부터 실시된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주 전역의 기업이 임시직 직원의 수를 줄이는 가운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따라, DOL은 이미 의무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줄이고 계획 승인 및 인증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2020년을 맞아 10배 증가한 계획을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했으며, 이를 통해 60,000명 이상의 뉴욕 주민이 팬데믹 기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DOL은 집중 지원 노력을 실시하고 고용주가 쉽고 신속하게 이처럼 중요한 프로그램에 대해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것입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